

국가대표 총출동하는 '광주오픈 챌린저 테니스'

14~21일 진월국제테니스장
30개국 200여명 선수 출전
권순우·홍성찬·남지성 참가
20일 사인회·21일 공유장터

권순우, 홍성찬 등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들이 광주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

2024 광주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 대회가 오는 14~21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개최된다.

세계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와 대한테니스협회(KTA)가 주최하고광주시 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 세계 30개국 2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우승 상금과 랭킹포인트를 노린다.

7번째 맞는 '광주오픈'은 월드 투어대회로 진급하기 위한 테니스 유망주들의 필수 동문이다.

총상금 8만2000달러 규모인 이번 대회 단식 우승자에게 75점의 랭킹 포인트와 상금(1만1200달러)이 주어진다. 복식 1위엔 상금 4665달러가 수여된다.

세계 랭킹 100~300위 선수들이 그랜드 슬램 진입 및 투어 100위내 진입에 도움이 되는 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테니스남자 국가대표인



국가대표 남지성(오른쪽)이 지난해 5월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2023 광주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복식 경기를 마친 뒤 상대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

홍성찬(ATP 단식 201위), 정운성(ATP 단식 387위), 이재문(ATP 단식 506위), 권순우(ATP 단식 645위), 남지성(ATP 단식 701위), 송민규(ATP 복식 463위) 등 6명이 출전한다.

신산희(ATP 단식 468위), 이덕희(ATP 단식 672위), 장윤석(ATP 단식

876위) 등도 세계적인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

해외 선수 중 가장 랭킹이 높은 맥스 퍼셀(호주·68위)과 턱위스 제임스(호주·109위), 버탄엔 오토(핀란드·127위) 등이 방한해 관객들에게 수준 높은 경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 대회 단식 결승에서 조던 톰슨(호주)에 0-2(3-6, 2-6)로 져 준우승에 머문 맥스 퍼셀은 올해 우승에 재도전한다. 2019년 대회 단식 우승자인 제이슨 정(대만·256위)도 두 번째 우승컵을 노린다.

대회는 14~15일 남자 단식 예선전, 15~20일 남자 단식 본선전, 15~19일 남자

복식 본선전으로 진행된다. 단식은 49경기(예선 18, 본선 31)와 복식 15경기(본선 15) 등 총 64경기가 치러진다. 대회 하이라이트인 복식 결승전은 20일 오후 11시부터 열린다.

광주시테니스협회는 광주오픈기간동안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도 동시 개최한다. 오는 20일 여성동호인대회, 21일 MZ 세대를 위한 테린이대회를 개최해 동호인들이 경기는 물론 경품추첨 등을 통해 광주오픈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도 마련된다. 광주오픈 단식 준결승과 복식 결승전이 열리는 20일 권순우 등이 참여하는 국가대표 사인회가 진행된다.

광주오픈 결승전이 열리는 21일 광주 공유센터와 '울망줄망 공유장터'를 연다. '울망줄망 공유장터'는 페이스·핸드 페인팅, 에코백 체험, 물피리 만들기 등의 공유 체험부스와 시민참여 물물교환하는 공유마켓, 공유놀이터 등으로 운영된다.

임상모 광주테니스협회장 직무대행은 "광주오픈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전해 세계 우수 선수들과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타 선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장소연 페퍼저축은행 제4대 사령탑 "우승? No! 탈꼴찌? Yes!"

감독 취임 후 첫 인터뷰

8년간 해설위원으로 현장 공부
블로킹·리시브 등 문제점 분석
비시즌 체력·기본기 훈련 집중
"단계적으로 강팀 만들어갈 것"



"감독의 목표는 당연히 성적을 내는 거죠. 급하게 가려고 하다 넘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강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V-리그 여자부 '막내 구단'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의 제4대 사령탑에 오른 장소연 신임 감독이 포부를 드러냈다.

'초보 감독'이지만 페퍼저축은행을 누

구나 원하는 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차근차근 기틀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장 신임 감독은 지난 9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영주종합체육관)에서 취임 후 첫 공식 인터뷰를 갖고 "성과와 관중 수가 비례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의 페퍼저축은행에서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여덟 시즌 간 해설위원으로 현장에서 배운 것들을 팀에 잘 접목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해설위원으로 지켜본 문제점인 수비 불안에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결정했다. 현재 열려 있는 자유 계약(FA) 시장과 앞으로 아시아 쿼터 및 외국인 선수 선발을 준비하면서도 훈련으로 팀을 강화해 만들 방침이다.

장 신임 감독은 "어떻게 하면 팀이 더 발

전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다"며 "배구의 트렌드는 세월이 지나며 바뀌지만 선수들의 자세와 마음가짐, 태도, 성실성 등은 변하지 않는다. 분명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신임 감독은 그동안 페퍼저축은행의 약점으로 노출됐던 체력과 기본기를 집중적으로 다질 방침이다. 이용희 수석 코치와 신오름 코치 영입과 함께 한지홍 수석 트레이너를 새로 데려왔고, 추가적으로 코칭스태프와 트레이너도 구성 중이다.

그는 "4월부터 6월까지의 체력 훈련에 비중을 둔다. 곳곳에 쌓이게 있어야 어려움이 생겼을 때 빠져 쓰듯이 체력을 잘 다져야 긴 시즌을 잘 보낼 수 있다"며 "코보컵 전까지 체력을 60%, 기술을 40% 정

도 가져간다. 섬세한 배구를 입힐 것이기 때문에 서브와 서브 리시브 등 기본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 시즌 동안 최하위를 거듭하면서 쌓인 패배 의식을 지우는 것도 사령탑의 역할이다.

지난해에는 팀 내부에서 베테랑 선수의 괴롭힘 의혹이 일며 어수선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장 신임 감독은 "원래 장소연의 이미지로 감독을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며 "개인 면담과 팀 미팅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이끌겠다. 다른 팀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 지나온 과정을 페퍼저축은행도 겪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길잡이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장소연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신임 감독이 지난 9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취임 후 첫 공식 인터뷰를 가진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의리에 박민·윤도현까지... 하루새 KIA 덮친 '부상 악령'

LG에 5-4 역전승... 단독 1위



하늘이 무심하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 KIA타이거즈가 2선발 이의리와 유격수 박민을 같은 날 부상으로 병원에 실어 보냈다.

퓨처스리그에서 복귀를 준비 중이던 윤도현은 이미 손가락 골절로 장기 이탈이 확정됐다.

KIA 이의리는 1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트윈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2차전 0-3으로 뒤진 2회말 1사 만루에서 문보경을 상



이의리

대로 초구를 던진 뒤 자진 강판됐다.

이의리는 벤치를 향해 팔꿈치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고, 곧바로 정재훈 투



박민

수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 김건국과 교체할 단행했다. 팔꿈치 통증으로 더 이상 투구가 불가능했고, 곧바로 얼음 찜질을 받



윤도현

은 뒤 구단 지정 병원에 검진을 위해 이동했다.

이범호 감독은 선발 등판한 이의리가 자진 강판된 가운데 경기 중반 추가 변수를 맞았다. 사구 후유증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박찬호를 대신해 유격수를 책임지고 있는 박민이 2-4로 뒤진 6회초 선두타자 신민재의 파울 타구를 쫓아가다 서프라이즈석(돌출 관람석) 펜스에 충돌했다.

박민은 펜스와 충돌한 왼쪽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며 일어나지 못했고 경기장으로 투입된 구급차에 실려 구단 지정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민 역시 정밀 검진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KIA로서는 검진 결과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KIA는 현재 주장인 나성범을 시작으로 황대인과 임기영, 박찬호가 부상으로 이탈해있다. 타박상인 박찬호는 다음 주중

복귀가 가능하지만 임기영과 황대인, 나성범은 복귀 시점의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특히 내야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 올 시즌 내야 백업으로 주목받았던 윤도현이 스프링 캠프 막바지 옆구리 통증을 호소한 뒤 퓨처스리그에서 실전에 복귀했는데 다시 부상으로 장기 이탈이 불가피해졌다.

윤도현은 같은 날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에서 열린 상무피닉스야구단과 2024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 시즌 2차전 1-0으로 앞선 3회초 2사 1루에서 3루타를 때린 뒤 슬라이딩 과정에서 왼쪽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고, 검진 결과 중지 및 약지 중수골 골절 소견을 받았다.

한편 KIA는 이날 LG를 상대로 5-4 역전승을 거둬 위닝시리즈를 확보했고, 단독 1위 자리를 사수했다. 한규빈 기자